

LG화학, 2005년 중국 현지화 가속

2005년 1월1일 중국 지주회사 설립 ... 중국 Top5 화학기업이 목표

국내 최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이 중국 5위 화학기업을 목표로 2005년 1월1일 중국 Beijing에 지주회사인 LG화학 중국투자유한공사(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LG화학 중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의 8개 생산법인, 2개 판매법인 및 3개 지사법인의 재무·인사·법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LG화학은 당초 폭발적인 중국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까지 중국중앙본부(Chinese Central Office) 체제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2005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중국 사업 전반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G화학은 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제품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중국 매출의 약 40%에 달하는 8억2000만달러를 중국 현지생산을 통해 창출하고 있으며 매출비중을 2006년 57%(18억4000만달러), 2008년 79%(35억6000만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LG화학은 중국 석유화학사업 성공을 발판으로 Industrial Materials & Informational & Electronic Materials도 R&D·생산·판매에 이르는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LG화학의 중국 매출은 2003년 15억달러에서 2004년 21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 매출목표는 32억달러, 2008년은 매출 45억달러, 영업이익률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1/10>